

중의학 증상어 "불인(不仁)" 의미적 기원 고찰

진월림(사천대학 문학신문학원)

제요

중의학 증상명 "불인(不仁)"의 정확한 어의와 어의 출처는 아직 정론이 없다. 본문은 출토문헌, 전세문헌, 방언 및 역외 자료를 참고하여 "불인"의 어의 요소를 귀납하고, 자형과 어원 각도에서 "인(仁)"의 "근(近)"의 의미에 대해 발생학적 해석을 했으며, 인지언어학, 어의유형학의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가까움——(감지)예민함——(행동)유연함"의 어의 변천의 인지 메커니즘을 발굴하고, "불인"이 "감각 상실 또는 감각 둔화"와 "행동 불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고찰했다. 같은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불인"은 일반 문헌에서 사유감정 영역의 "우둔함"의 의미로도 확장되었다.

주제어: "불인", 자형, 어원, 어의 변천, 인지 메커니즘

"불인"은 흔히 볼 수 있는 중의학 증상명으로, 진한시기 의서에 이미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고대의 "불인"에 대한 훈석은 의견이 분분했고, 현대 사전은 "감각 상실"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이루었지만, 어의 귀납이 완전하지 않고 의미를 얻게 된 유래도 밝히지 못했다. 더 정확하게 어의를 이해하고 고적을 해독하기 위해, 선배들의 연구 기초 위에서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빌려 "불인" 및 그 핵심 구성 "인"의 어의 요소를 분석하고, 어의 변천 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一. 증상명 "불인"에 대한 역대 훈석

(一) 고대 훈고

1. "인"을 "친(親)" "각(覺)"의 의미로 해석

『소문·비론(素問·痺論)』: "피부불영고위불인(皮膚不營故爲不仁)." 수나라 양상선(楊上善) 주석: "인자, 친야, 각야. 영위급경락지기소색, 불영피부, 불지우피부지중, 고평부불각통양, 명왈불인(仁者, 親也, 覺也. 營衛及經絡之氣疏澀, 不營皮膚, 不至於皮膚之中, 故皮膚不覺痛癢, 名曰不仁)." 송나라 양진(楊慎)『선성대훈(先聖大訓)』권3 "은이(隱而)": "인, 각야. 의서위사체불인, 부지각야(仁, 覺也. 醫書謂四體不仁, 不知覺也)." 명나라 초굉(焦竑)『담원집(澹園集)』권47 "송정당답문(崇正堂答問)": "의서이수족위비위불인, 차대고지유언, 환시각자갱친절(醫書以手足痿痺爲不仁, 此殆古之遺言, 還是覺字更親切)."

비평: 『설문해자·인부(說文解字·人部)』: "인, 친야(仁, 親也)." 양 주석은 『설문』을 인용했지만 "각"과 "친"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인"을 "각"으로 훈석하면 "불인"은 "무각(無覺)"이 되어, 문맥에 대입하면 의미가 통하지만, 이 의미의 유래를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차대고지유언(此殆古之遺言)"으로 얼버무리면, 어의를 정확히 밝히고 고서를 정확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 불리하다.

2. "인"을 "유(柔)" "화순(和順)"의 의미로 해석

금나라 성무기(成無己)『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권3 "불인": "인, 유야. 불인위불유화야. 양부지야, 통부지야, 한부지야, 열부지야. 임기굴신구자, 부지소이연자, 시위불인야(仁, 柔也. 不仁謂不柔和也. 癢不知也, 痛不知也, 寒不知也, 熱不知也. 任其屈伸灸刺, 不知所以然者, 是謂不仁也)." 조대중(趙大中)『풍과집험명방(風科集驗名方)』: "중풍불인자, 언인위중선지장, 주온화자순. 금즉사지강직, 불능서권, 근련긴급. 시유영위불통, 고위불인야(中風不仁者, 言仁爲衆善之長, 主溫和慈順. 今則四肢強直, 不能舒卷, 筋攣緊急. 是由榮衛不通, 故爲不仁也)."

비평: "유"와 "부지소이연(不知所以然)" 사이의 논리 관계가 불명확하다. 조씨 설은 "인"을 "온화자순"으로 풀이하고, "사지강직"의 증상과 "영위불통"의 병기로 "불인"에 대응시켰는데, 일정한 합리성은 있지만 증거 지지가 부족하고 주관적 추측 색채가

잘다.

3. "인"을 "과인(果仁)"의 의미로 해석

명나라 마시(馬蒔)『내경소문주증발미(內經素問注證發微)』권5 "풍론편(風論篇)": "개과핵중유인, 유육무소지, 즉약유불능여인유생의의, 수이불인명지야(蓋果核中有仁, 惟肉無所知, 則若有不能如仁有生意矣, 遂以不仁名之也)."

비평: "과인(果仁)"의 "인"은 "인(人)"의 가차자여야 한다. 『설문해자주·인부(說文解字注·人部)』: "과인지자, 자송원이전본초방서, 시가기재, 무불작인자. 자명성화중간〈본초〉, 내진개위인자(果人之字, 自宋元以前本草方書、詩歌記載, 無不作人字. 自明成化重刊《本草》, 乃盡改爲仁字)." "과인"의 "인"과 "불인"의 "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

4. "인"을 "인애(仁愛)"의 의미로 해석

명나라 오곤(吳崑)『소문오주(素問吳注)』권4: "불인, 부지동통, 약불인애기신자(不仁, 不知疼痛, 若不仁愛其身者)." 산전정진(山田正珍)『상한론집성(傷寒論集成)』권6 "변양명병맥증병치(辨陽明病脈證並治)": "안병증왈불인, 한열통양병부지각지명. 벽제불인인, 로시인지환난, 갈연무개우심, 시이위지불인(按病證曰不仁, 寒熱痛癢並不知覺之名. 辟諸不仁人, 路視人之患難, 惘然無介於心, 是以謂之不仁)." 또 『소문·역조론(素問·逆調論)』"불인차불용, 명왈육가(不仁且不用, 名曰肉苛)"에 근거하여 "가내가정지가, 역유불인지의존언(苛乃苛政之苛, 亦有不仁之意存焉)"이라 했다.

비평: "불인애(不仁愛)"로 자신의 아픔과 가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것은 합리적 성분이 있지만 증거 지지가 부족하다.

5. "불인"은 곧 "불인(不人)"

향천수덕(香川修德)『일본당행여의언(一本堂行余醫言)』: "일신피부상모마지, 이자이위비오신야, 유격화소양지의, 편시인이비인, 고왈불인야(一身皮膚上摸摩之, 而自以爲非吾身也, 猶隔靴搔癢之意, 便是人而非人, 故曰不仁也)."

비평: "인""인"은 문헌에서 확실히 대량의 상통 예가 있고, 의서에서 "불인"도 자주 "불인(不人)"으로 쓰인다. "인""인"의 관계가 밀접하고, "인"이 "인"에서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화 후 형의가 모두 변화했다. "불인"을 직접 "불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인"의 이유를 더 명확히 할 수 없다. "인이비인(人而非人)"의 해석은 우회적이고 건강부회의 혐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 3, 4, 5의 해석은 건강부회하거나 충분한 증거 지지가 부족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점 1의 "각(覺)" 해석에 동의하며, 후문에서 더 많은 문헌을 통해 검증하고 그 출처를 발굴할 것이다.

(二) 현대 사전

몇 부의 대형 사전의 "불인"과 "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표1 사전 해석 대조표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중편국어사전(重編國語辭典)』의 "불인" 해석은 감지와 운동 두 차원을 포괄했지만, 상응하는 "인"의 해석은 감지 차원만 관련되었다. 『사해(辭海)』는 반대로, "불인"의 해석은 감지 차원만 관련되고, "인"은 감지, 운동을 겸한다. 『사원(辭源)』의 "불인"과 "인"은 각각 감지와 운동과 관련된다. 나머지 몇 부 사전의 해석은 모두 감지 영역만 관련된다. 『한어대사전』을 제외하고, 위에서 열거한 몇 부 사전에서 "인"의 해석이나 예증은 모두 그 부정식 "불인"과 결합되어 있다.

가시적으로, 현대 사전은 고대 훈고에 비해 "불인"의 해석 방면에서 이미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더 정확하고 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맥락 하의 "불인"과 "인"의 의향이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인"의 해석과 예증이 또 "불인"과 묶여 있어, 이런 모순은 편찬자가 "불인"의 어의 출처 인지가 불명확함을 보여준다.

二. "불인" 고찰

(一) "불인"의 맥락 분석

"불인"은 선진양한의 의적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 (1) 한비지위병야, 류이불거, 시통이피불인(寒痺之爲病也, 留而不去, 時痛而皮不仁). (『영추·수요강유(靈樞·壽夭剛柔)』)
- (2) 한산, 복중통역랭, 수족불인(寒疝, 腹中痛逆冷, 手足不仁). (『금궤요략(金匱要略)』권상 "복만한산속식병맥증치")
- (3) 말□굴(屈)수, 벽(臂)□불인(仁)자, 근차(疽) (天回医简《脉书·下经》)

(4) 영위불능상장, 삼초무소앙, 신체비불인(榮衛不能相將, 三焦無所仰, 身體痺不仁).
(『상한론(傷寒論)』권1 "평맥법")

"불인"의 주요 표현은 한열통양을 알지 못함, 지체 굴신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귀납할 수 있다.

1. 한열통양을 알지 못함

(5) 제왈: "선. 비, 혹통, 혹불통, 혹불인, 혹한, 혹열, 혹조, 혹습, 기고하야?" 기백왈: "통자, 한기다야, 유한고통야. 기불통불인자, 병구입심, 영위지행색, 경락시소, 고불통(帝曰: "善. 痺, 或痛, 或不痛, 或不仁, 或寒, 或熱, 或燥, 或濕, 其故何也?" 岐伯曰: "痛者, 寒氣多也, 有寒故痛也. 其不痛不仁者, 病久入深, 榮衛之行澀, 經絡時疏, 故不通)."
(『소문·비론』)

(6) 피부불영고위불인(皮膚不營故爲不仁). (『소문·비론』) 불인자, 피완부지유무야(不仁者, 皮頑不知有無也). (당·왕빙 주) 불인, 부지통양야(不仁, 不知痛癢也). (청·고세질 『황제소문직해(黃帝素問直解)』권3) 불인, 즉완목부지통양(不仁, 則頑木不知痛癢). (청·서영태 『내경전석·비론(內經詮釋·痺論)』)

(7) 불인, 즉『신농본경』'사기(死肌)'. 후세소위목시. 내완비, 후세소위마시. 이증부동. 연마자필목, 목자다마(不仁, 即《神農本經》'死肌'. 後世所謂木是. 乃頑痺, 後世所謂麻是. 二證不同. 然麻者必木, 木者多麻). ([일]단파원간『소문식(素問識)』권3 "혈기형지편")

예 (5) 황제의 질문은 "불인"을 "통""한""열""조""습" 등 감각과 구분하고, 기백의 답변은 또 "불통""불인"을 한 부류로 귀속시켰으니, "불인"이 상술한 감각어와 "감각"어의장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통""한" 등 구체적 감각에 비해, "불인"과 구체적 감각을 부정한 "불통"이 더 접근한다.

예 (6), 왕빙 등 몇몇 주석가는 "불인"을 피부가 완목하여 통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예 (8), "마(麻)"를 조절한다. "마""목"은 석언하면 구별된다. 명나라 손문운(孫文胤)『단대옥안(丹臺玉案)』권2 "마목문(麻木門)": "소위마자, 비양비통, 기육지내, 여천만소충란행잡비, 안지불지, 소지유심시야. 소위목자, 비양비통, 자가지기육, 여

타인지기육, 안지부지, 소지불각시아(所謂麻者, 非癢非痛, 肌肉之內, 如千萬小蟲亂行雜沸, 按之不止, 搔之愈甚是也. 所謂木者, 非癢非痛, 自己之肌肉, 如他人之肌肉, 按之不知, 搔之不覺是也)." 가시적으로, "마"는 오히려 벌레가 기는 것 같은 이감이 있고, 통양 자극에 반응이 있지만, "목"은 완전히 무감이다. "불인"은 "목"과 가까워, 자기 지체에 대해 "안지부지, 소지불각(按之不知, 搔之不覺)"으로 표현된다.

또, 『소문·비론』: "(비)재우육즉불인((痺)在於肉則不仁)." 수나라 양상선『황제내경태소존(黃帝內經太素存)』권28 "비론"에서, "불인"이 "부지(不知)"로 되어 있고, 주석하기를: "부지자, 불각불인야(不知者, 不覺不仁也)." 이문과 주석에 근거하면, "불인"이 "부지""불각"과 의미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

2. 지체 경직, 굴신 불자유

(8) 형수경공, 경락불통, 병생우불인(形數驚恐, 經絡不通, 病生於不仁). (『소문·혈기형지편(素問·血氣形志篇)』) 불인위불응기용, 즉비의(不仁謂不應其用, 則痺矣). (당·왕빙주) 병생우불인자, 공상골, 신주골, 골속굴신불리, 고불인야(病生於不仁者, 恐傷骨, 腎主骨, 骨屬屈伸不利, 故不仁也). (청·고세질『황제소문직해』권3)

(9) 불인위강직이무각야(不仁爲強直而無覺也). (금·성무기『주해상한론(注解傷寒論)』권1 "평맥법")

(10) 기비풍발즉면황, 신체불인, 불능행보(其脾風發則面黃, 身體不仁, 不能行步). (당·손사막『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권25 "치제풍방")

(11) 불열자, 내양기쇠미, 음한응체기혈, 기육견경불인(不熱者, 乃陽氣衰微, 陰寒凝滯氣血, 肌肉堅硬不仁). (청·심명종『금궤요략편주(金匱要略編注)』권18 "창옹장옹론삼조방사수")

가시적으로, "불인"의 표현은 "무각" 외에도, 지체가 "불응기용(不應其用)"하고, 강직하여 굴신이 불리한 것이 있다.

또한, 의서에서 "불인"은 자주 "불수(不遂)" "불수(不隨)"와 함께 나타난다. 예:

(12) 병탄완불수, 풍습비, 불인, 편고구곡(並癱緩不隨, 風濕痺, 不仁, 偏枯拘曲). (진·갈홍『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권8 "치백병비급환산고제요방")

(13) 수족불수, 언어건색, 완종불인(手足不遂, 言語蹇澀, 緩縱不仁).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권23 "치중풍수각불수제방")

(14) (사기)공우좌측좌불수, 공우우측우불인((邪氣)攻於左則左不遂, 攻於右則右不仁). (『중장경(中藏經)』권중 "론기비")

예 (14), "불수"와 "불인"이 호문으로, 근의어로 사용된다. "불인"의 증상 표현이 지체 강직, 굴신 불리일 때, "불수""불수"와 확실히 유사한 점이 있다.

성무기는 "인"을 "유(柔)"로 해석했다. "불인"은 곧 "불유(不柔)", 즉 현대 한어의 "불영활(不靈活)"이다. 『장자·산목(莊子·山木)』: "차근골비유가급이불유야(此筋骨非有加急而不柔也)." 진고응 금주: "불유, 불영활(不柔, 不靈活)."

문헌 예증을 정리하면, "불인"은 사람의 지체에 발생하며, 감각과 운동 두 방향의 장애를 포함한다. 『사해』의 "불인"의 "인"에 대한 해석, 『한어대사전』『중편국어사전』의 "불인"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고 전면적이며, 서로 보완할 수 있다.

(二) "인"의 자형 원류

『설문·인부』: "인, 친야. 종인종이(仁, 親也. 從人從二)." 『견부(見部)』: "친, 지야(親, 至也)." 단주: "『지부(至部)』왈: '도자, 지야(到者, 至也).' 도기지왈지, 정의간도왈지(到其地曰至, 情意懇到曰至)." 『광아·석고삼(廣雅·釋詁三)』: "친, 근야(親, 近也)." 혜림『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권46 인『창힐편(蒼頡篇)』: "친, 근야(親, 近也)." 가시적으로 "친"은 구상 또는 추상의 "거리가 가까움"을 표시한다. 『설문해자주·인부』"인": "종인이, 회의. 『중용』왈: '인자, 인야(仁者, 人也).' 주: '인야, 독여상인우지인, 이인의상존문지언(人也, 讀如相人偶之人, 以人意相存問之言).' 『대사의(大射儀)』'읍이우(揖以耦)' 주: '이상인우위경야(以相人耦爲敬也).' …… 안: 인우유언이아, 친밀지사. 독즉무우, 우즉상친, 고기자종인이(按: 人耦猶言爾我, 親密之詞. 獨則無耦, 耦則相親, 故其字從人二)." "인"을 인(人)과 이(二)로 된 회의자로, 친근, 친밀의 뜻을 모은다.

"인"자는 갑골문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춘추 초기의 노백유부격(魯伯愈父鬲) 명문에 인명으로서의 "인"이 나타났다: "노백(伯)유작(作)저(邾)희인(媿)수격, 기영보용(魯伯愈作邾姬仁媿羞鬲, 其永寶用)." 이 기물은 노백이 딸 "저희인"을 위해 주조한

영기(勝器)이다. "인"은 ""로 쓰였다. 같은 시기의 노백유부부(魯伯俞父簠), 노백유부반(魯伯愈父盤), 노백유부이(魯伯愈父匜)도 이 형태로 썼다. 노나라는 주공의 봉읍으로, 춘추시기에 주례를 삼가 받들었고, 서법상으로도 서주 전통을 따랐다. 따라서 ""는 "인"의 비교적 이른 자형으로 볼 수 있다. 금문에서 "="는 중문부호나 합문부호로 사용될 수 있다. 합문부호는 전후로 연결된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글자의 합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대략 춘추 만기에 나타났다. "" 중의 "="는 분명 합문부호가 아니고, 중문부호일 가능성이 크다. "인(人)" 부근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우하각에 놓이지 않은 것은, 자구 중복을 표시하는 중문부호와 구별하기 위함일 수 있다. ""의 초기 자형은 두 개의 "인" 부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자들의 고찰에 따르면, "인"은 두 사람으로 된 고문자 구형이 있다. 장태염(章太炎, 1900): "고이기'인(人)'유작' 人'자, 중인, '인'즉위' 人', 이소획'이(二)'대중문즉위' 仁(仁)', 명기비양자의(古彝器'人'有作' 人'者, 重人, '人'則爲' 人', 以小畫'二'代重文則爲' 仁', 明其非兩字矣)." 이 구조의 "인"과 "인"이 본래 한 글자라고 여겼다. 동작빈(董作賓, 1952): "인, 인자중문, 고흥작 人, 우작인, 의위인여인지간, 호상친애(仁, 人字重文, 古或作 人, 又作 仁, 意謂人與人之間, 互相親愛)." 마서륜(馬敘倫, 1928) 권15 인공등(引龔橙)왈: "" 견한간, 즉', 전성작'인(仁)', 오설종이(' 見汗簡, 即' ', 篆省作'仁', 誤說從二)." 이 구형은 주로 전초고문에서 보이는데, 예컨대 "" (당나라 이양빙『겸괘명(謙卦銘)』)" " (『한간·중지일·제삼(汗簡·中之一·第三)』)" " (『고문사성운·상평·고노자(古文四聲韻·上平·古老子)』)" " (『고문사성운·상평·화엄비(古文四聲韻·上平·華嚴碑)』)" " (『고문사성운·상평·운대비(古文四聲韻·上平·雲臺碑)』)" " (송나라『채씨묘지(蔡氏墓志)』)" " (명나라 황도주가 그의 아버지 묘지와 비명에 쓴 것). 근년, 출토문헌 전국문자 연구가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학자들은 대량의 전국문자가 전초고문과 합치함을 발견했는데, 이는 전초고문이 고문자형체 보존에 대한 가치를 체현한다. "연구(전초)고문중의 이체현상, 고서의 자사혼고, 용자정황, 통가현상, 자형오오 등 다방면에 균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研究(傳抄)古文中的異體現象, 對古書的字詞訓詁、用字情況、通假現象、字形訛誤等多方面均有重要的意義)." 따라서, 이런 두 사람으로 된 구형은 아마도 더 오래된 연원이 있을 것이다. 비록 시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구형 이거는 ""의 초기 자형과 일치해야 한다.

진간의 "인"은 인(人)과 이(二)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 (수·위36·1), " (수·답63). 『설문·인부』 "인"자 소전 " (와 일치한다. 전국 만기 중산왕조정(中山王厝鼎) 명문에서 "인"은 시(尸)와 이(二)로 되어 " (로 썼는데, 『설문』고문 " (와 일치한다. "시(尸)"는 곧 "인(人)"의 변체이다. 『설문해자구독·인부(說文解字句讀·人部)』: "시내시인횡진우상이 (尸乃是人橫陳於上耳)."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을 상형했다. 따라서 인이(人二), 시이(尸二)의 자형은 한 부류로 볼 수 있고, " (와 맥을 같이 한다.

"인"은 전국 초간에서 또 다른 부류의 자형이 나타났다. 신(身)과 심(心)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 (곽·오9), " (곽·존3), " (상·일·치7·32). 또 천(千)과 심(心)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 (곽·성55), " (상·일·성33·17); 인(人)과 심(心)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 (곽·당15). "신"천"인" 고문자 자형이 유사하고, 상고음이 모두 진부(眞部)에 속하므로, 상술한 세 가지 형체 간에는 서로 오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설문』고문 " (는 이 부류에 속한다.

상술한 진초 간독, 중산왕조정 명에서, "인"은 기본적으로 "인애(仁愛)" "인덕(仁德)" 등의 의미로 해석되며, 의학 맥락에 사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된 "인" 구형이 신/천/인심으로 된 구형보다 더 일찍 생겨났다고 본다.

첫째, 화하 선민이 문자를 창조할 때 종종 구상 사유를 따르고, 구체적 실물의 묘사에 착안하여 "의류상형(依類象形)"하고, 직관과 경험을 강조했다. 따라서 초기 한자의 추상성은 불가능하게 강할 수 없고, 자부(字符)가 실은 정보가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두 사람으로 된 "인"은 추상 정도가 가장 낮다. "인" 구형의 핵심 요소는 "인(人)"이다. 왕력(王力, 1982: 535)은 "인" "인"이 동원자라고 여기고, 이가호(李家浩, 1987: 12), 황덕관(黃德寬, 2007: 3524)은 "인"이 "인"에서 분화되었다고 여긴다. 유문영(劉文英, 1990: 52)은 제출하기를, 정현(鄭玄)의 『중용』 "인자, 인야(仁者, 人也)"에 대한 주석 "독여'상인우(相人偶)'지'인(人)"은 단순한 음훈이 아니고, 동시에 "인"의 의미에 대해 "소원성적 주해(溯源性的注解)"를 했으며, "인"과 "상인우"의 "인"이 사상상의 연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했다. 발생학 각도에서 볼 때, "인" "인"은 아마도 동원일 것이다. 최초의 조자는 가능하게 "상인우(상인偶)"와 같은 인간관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묘사하여, "가까움"의 뜻을 표시했을 것이다. 샤가르(沙加爾, 2004:

179)는 추측하기를, 한어 "인(人)" *bnin > nyin은 장문 ñe-n(남성 친척, 동족자)과 동원이며, 후자는 ñe(가까움)에 명사화 후사 -n을 더한 것이므로, 한어 "인"의 어근은 가능하게 "닐(暱)" *bnrit>nrit(가까움, 익숙함, 친닐)이고, "인"은 *bnit-n>nyin(사람)이라고 했다. 장어 동원어를 빌려, "인(인)"이 어원의 "가까움"을 내포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춘추 이후, "인"은 또 광범위한 도덕윤리 관념으로 밝혀졌다. "인"의 함의는 "내포식의, 은성적, 자연 생성된 인류 성정에서 외향식의, 현성적,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원칙으로 발전했다". 관점 초간에서 대량의 신/친/인심으로 된 "인"은 "심(心)"이라는 중요한 구건을 증가시켜, 당시 사람들의 "인"에 대한 인식이 형이상학으로 발전함을 반영했다.

둘째, "인" 외에도, 전국 초간에서 또 많은 "심(心)" 부건을 증가시킨 글자가 새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외(懷, 畏)" " (애, 哀)" "척(感, 戚)" "난(難, 難)" "역(惕, 易)" " (재, 才); 또는 원유 부건을 "심" 부건으로 바꾼 것, 예컨대 " (희, 喜)" "환(權, 勸)" " (의, 義)" " (모, 謀)" "기(基, 欺)" "순(訓, 順); 또는 원자형을 버리고, 심(心)으로 바꾸어 다시 성부를 더한 형성자로 바꾼 것, 예컨대 " (과, 過)" " (녕, 佞)". 유보준(劉寶俊, 2005)은 이 현상이 전국시기 유가에서 분열된 자사학파(子思學派)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자사학파가 발전시킨 신인학(新仁學)은 마음으로 안을 향해 성찰하여 인을 구함을 강조했는데, 전국 중기에 초지에 유행했다. 이런 관념이 문자에 반영되면, 곧 대량의 "심" 부건의 출현이다. 이것도 신/친/인심으로 된 "인"이 특정 시기, 지역 내 특정 관념 영향의 산물이지, 최초의 자형이 아님을 증명한다.

"인"의 자형 변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중문 원본 참조)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인"의 초기 자형의 핵심 부건은 두 개의 "인(人)"이고, 두 사람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묘사하여, "가까움"을 표시하고, 심리의 "친근"으로 인신되고, 다시 진일보 윤리의 "인덕"으로 추상화 범화했다고 본다. 춘추전국시기, 사상문화가 전례 없이 번영했고, "인"의 윤리 내포가 강화되었다. "인"은 유가 핵심 개념과 최고 도덕 표준이 되었다. 윤리 교화 색채를 갖춘 "인덕" 의미는 유학 독존 지위를 수반하

여 강세 의향이 되었다.

(三) "인"의 기타 동원어

"인(人)"과 동원인 것 외에도, "인"은 "니(닐, 尼暱)" "이(邇)"와도 동원 관계를 갖는다.

『설문·시부(尸部)』 "니(尼)": "종후근지(從後近之)." 단주: "니훈근, 고고이위친닐자(尼訓近, 故古以爲親暱字)." 임의광(林義光) 『문원(文源)』 권6: "비(匕), 인지반문. 시역인자. 상이인상닐형, 실닐지본자(匕, 人之反文. 尸亦人字. 象二人相暱形, 實暱之本字)." "니"는 고문헌에서 자주 "닐(暱)"로 통한다. 방마탄진간(放馬灘秦簡) 『천갑·견기(天甲·犬忌)』: "번원중견시(屎), 견불니(닐)(播園中犬矢(屎), 犬弗尼(暱))." 『시자(尸子)』 권상: "열니이원래(悅尼而遠來)." 『설문·일부(日部)』 "닐(暱)": "일근야. 종일, 닉성. 닐, 닐혹종니(日近也. 從日, 匿聲. 昵, 暱或從尼)." "닐"의 본의는 "일근(日近)"이고, 혹 니성(尼聲)으로 "닐(昵)"을 만들었는데, 가능하게 "니"의 분화자이다. "니"는 "친닐(親暱)" 의미의 본자이고, 후세에 "친닐" 의미를 표시하는 "닐"은 실은 "니"의 가차자이다. 『시·소아·완류(詩·小雅·菀柳)』: "무자닐언(無自暱焉)." 모전: "닐, 근야(暱, 近也)." 『이아·석고하(爾雅·釋詁下)』: "닐, 근야(暱, 近也)." 곽박 주: "친근야(親近也)." 『설문통훈정성·이부(說文通訓定聲·履部)』: "근닐지의, 자역작닐, 여이락동(近暱之意, 字亦作昵, 與邇略同)."

『설문·작부(辵部)』: "이(邇), 근야(近也)." 『이아·석고하』: "이, 근야(邇, 近也)." 『곡량전·장공십팔년(穀梁傳·莊公十八年)』: "불사용이우아야(不使戎邇於我也)." 진(晉) 범녕 주: "이, 유근야(邇, 猶近也)."

"인"의 상고음은 왕력 체계에서 일모(日母) 진부(眞部)에 속하고, "니"는 니모(泥母) 지부(脂部) 또는 질부(質部)에 속하고, "이"는 일모 지부이다. 니일(泥日)은 준쌍성(準雙聲), 지/질진(脂/質眞)은 대전(對轉)으로, "인""니""이"는 음이 가깝다.

일본 나라시대(710-794)의 만엽가나(萬葉假名)는 한자로 음을 표기했는데, 한자 동음자가 많아서, 한 음을 표기하는 한자가 고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に ni 음은 "이(爾)" "이(迓)" "이(二)" "인(仁)" "인(人)" "일(日)" "니(尼)" "이(耳)" "이(而)" "유(柔)" "니(你)" "이(貳)" 등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이 한자들이 나라시대에 ni와 같거나 가까운 독음이었음을 반영한다. 비록 시대가 상고에서 이미 멀었지만, "인""니""이"가 상고

에서 근대까지 큰 음변을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연계하면, 따라서 여전히 "인""니""이" 음이 가깝고 통할 수 있음에 대한 역외 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자형으로 볼 때, "인""니"는 혹 한 글자에서 분화되었다. 고문자에서 두 개의 "인(人)" 부견으로 구성된 "니"가 상당히 많은데, 예컨대 "" (방마탄진간일서갑종·72), "" (방마탄진간일서을종·307), "" (고명『고도문휘편(古陶文彙編)』5·48), "" (원중일『진대도문(秦代陶文)』1362) 등등. 마서륜『설문해자육서소증(說文解字六書疏證)』: "니위인지초문(尼爲仁之初文)." 『한자원류사전(漢字源流字典)』은 "인"을 "니"의 변체로 본다. 무수신(武樹臣, 2015)은 "니"가 "인"의 원형자 중 하나라고 본다.

『동원자전(同源字典)』은 "닐(暱)""닐(黏)""니(尼)""이(邐)"를 한 그룹의 동원자로 귀속시켰는데, 공동 의소는 "가까움"이다. 『한어동원사대전(漢語同源詞大典)』은 "니(泥)" ""니(柅)""닉(詭)""이(泥)""닉(拏)"을 동원어로 귀속시키고, "점착(黏)""멈춤(止)""가까움(近)" 의미가 "니(尼)" 성이 실은 공공 의미이고, 성부자 "니" 본래 근의(近義)가 있음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인""니""이"는 동원이고, 어원 의미는 "니" 성이 실은 "가까움"이다.

(四) "인"의 어의 변천

중의 맥락에서 "불인"의 "인"의 의미는 어떻게 온 것인가?

1. "(감지)예민함" 의미의 생산

외부 공간의 "가까움"은 내부 감지 차원의 "예민함", 심리의 "친근"을 인식할 수 있다. "가까움"에서 "예민함"까지, 배후의 인지 메커니즘은 인과관계에 기초한 환유로 이해할 수도 있고, 공간 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즉 "공간 개념을 시원역으로 하여 기타 인지역 또는 목표역으로 사상하여 인식과 추상 의미를 획득하는 인지 과정"이다. 공간 개념은 인지 주체의 공간 체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 공간 또는 시간 거리가 가깝고, 인지 주체의 생활 환경과 과거 경험에 밀접한 사물은, 종종 더 쉽게 감지 이해된다. 따라서, 물리 공간의 "가까움——면"은 감지 영역의 "앞——모름"을 사상할 수 있다. 고대 한어, 한어 방언 및 한어 밖의 기타 언어에서 모두

예증이 있는데, 예:

"근(近)"은 "알(知曉)" "천근이해(淺近易曉)" 의미가 있다. 『여씨춘추·집일(呂氏春秋·執一)』: "유유기재자위근지(唯有其材者爲近之)." 고유 주: "근, 유지야(近, 猶知也)." 『맹자·진심하(孟子·盡心下)』: "언근이지원자, 선언야(言近而指遠者, 善言也)." 『신당서·반신전하·고병(新唐書·叛臣傳下·高駢)』: "어언리근(語言俚近)."

"천(淺)"은 "명백이해(明白易懂)" 의미가 있다. 동한 왕충『논형·초기(論衡·超奇)』: "연이천로이전, 관독지자, 유왈전기(然而淺露易見, 觀讀之者, 猶曰傳記)." 『하문방언사전(廈門方言詞典)』 "천" 의항2: "천현; 간단이해(淺顯; 簡單易懂)."

"이(邇)"는 "천근이해(淺近易曉)" 의미가 있다. 『예기·중용(禮記·中庸)』: "순호문, 이호찰이언(舜好問, 而好察邇言)." 정현 주: "근언이선, 이이진인(近言而善, 易以進人)." 주희 주: "이언자, 천근지언(邇言者, 淺近之言)."

"심(深)"은 "심오난해(深奧難解)" 의미가 있다. 『논형·자기(論衡·自紀)』: "하이위변? 유심이천(何以爲辯? 喻深以淺)." 진(晉) 하소『잡시(雜詩)』: "도심난가기, 정미비소모(道深難可期, 精微非所慕)." 『한어방언대사전(漢語方言大詞典)』 "심침(深沉)" 의항2: "심오; 오묘. 북경관화; 서남관화(深奧; 奧妙. 北京官話; 西南官話)." 『현대한어방언대사전(現代漢語方言大詞典)』 "심"은 하얼빈, 귀양, 만영 등 다지 방언에서 균히 "심오난해(深奧難懂)" 의미가 있다.

"원(遠)"은 "심오(深奧)" 의미가 있다. 『역·계사하(易·繫辭下)』: "기지원, 기사문(其旨遠, 其辭文)." 남조 양(梁) 임방『위소양주천사표(爲蕭揚州薦士表)』: "속언현원(屬言玄遠)."

"우(迂)"는 "우매(愚昧)" "지둔(遲鈍)" 의미가 있다. 송 범중엄『상공수이책전(上攻守二策傳)』: "재식우매, 종무발명(才識迂昧, 終無發明)." 송 소순흠『야문추성감이성영동린기작(夜聞秋聲感而成詠同隣幾作)』: "우둔불가위, 굴곡성역난(迂鈍不可爲, 屈曲性亦難)." 『한어방언대사전』 "우모(迂摸)" 의항2: "완만불영민적인. 기로관화(緩慢不靈敏的人. 冀魯官話)." 『현대한어방언대사전』 "우" 의항1: "서주. 두뇌불청석(徐州. 頭腦不清晰)."

또 기타 언어의 예를 비교할 수 있는데, 예: 러시아어 중의 близко는 공간거리의 "가까움"을 가리키기도 하고, "익숙하게" (인지) 명확하게를 표시하기도 한다;

далёкие страны는 "원방의/미지의 국토"를 표시한다. 영어 중 "두꺼운"을 표시하는 "thick"은 "지둔(遲鈍)" 의미가 있다; "깊은; 두꺼운"을 표시하는 deep은 "심오한; 난해한; 어려운"의 뜻이 있다. 독일어 tief는 "깊은; 심각한"을 표시한다. 인도네시아어 dalam은 "깊은; 심오"를 표시한다.

따라서, "인"이 "가까움"에서 "(감지)예민함"으로 인신되는 것은 인지 규율에 부합한다.

의학 맥락의 "인"은 주로 구체 감각을 가리키고, 외부 자극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불인"은 곧 구체가 외부 자극에 대해 감각이 없거나 감각이 둔한 것이다. 진일보 사유와 정감 영역으로 인신되면, "인"은 "민첩""민감"을 가리키고, "불인"은 곧 "우둔"을 가리킨다. 『손자·용간(孫子·用間)』: "이애작백금, 부지적지정자, 불인지지야(而愛爵百金, 不知敵之情者, 不仁之至也)." 당나라 왕도『외대비요방(外臺祕要方)』권30 "악질대풍뢰창등(惡疾大風癩瘡等)": "인자이공어, 고가료야(仁者易共語, 故可療也)." 『광운·마운(廣韻·馬韻)』"사(傻)": "사초, 불인(傻俏, 不仁)." 명나라 부인우『심시요함(審視瑤函)』권1: "기유불의불하지리호? 발차언자개계우인지질, 함우침고지지, 기립심야불인. 청차언자, 역위우이불치심의(豈有不醫不瞎之理乎? 發此言者皆系愚人之疾, 陷於沉痾之地, 其立心也不仁. 聽此言者, 亦謂愚而不治甚矣)." 양계초『선진정치사상사(先秦政治思想史)』: "수족마비, 칭위'불인', 위기동재일체지중이피차통양불상성야. …… 왈불인자, 동류의식마목이이의; 인자, 동류의식각성이이의. …… 불인지극, 즉감각마목, 이사지통양호불상지; 인지극, 즉감각예민, 이전인류정의리환지우아궁, 약전지상진야(手足麻痺, 稱爲'不仁', 爲其同在一體之中而彼此痛癢不相省也. …… 曰不仁者, 同類意識麻木而已矣; 仁者, 同類意識覺醒而已矣. …… 不仁之極, 則感覺麻木, 而四肢痛癢互不相知; 仁之極, 則感覺銳敏, 而全人類情義利害之於我躬, 若電之相震也)." 개체 통양에 대한 "인"과 "불인"으로, "전인류정의리환"에 대한 "인"과 "불인"을 유비하여, 명확히 "감지——사유정감"의 인신 경로를 제시했다. 문학의 비유 수사, 어의의 발전 변천, 배후의 인지 메커니즘은, 종종 맥을 같이 한다.

심리의 "친근"도 가능하게 공간의 "가까움"에서 직접 인신될 수 있다. 공간의 "멀——가까움"은 심리의 "소원——친근"을 사상할 수 있다. 유비할 수 있는 것은:

"근(近)"은 "친근(親近)" 의미가 있다. 『편해유편·인사류·착부(篇海類編·人事類·走部

』: "근, 친야(近, 親也)." 『상서·오자지가(尚書·五子之戒시도M계속歌)』: "민가근, 불가하(民可近, 不可下)." 공안국 전: "근, 위친지(近, 謂親之)." "원(遠)"은 "소원(疏遠)" 의미가 있다. 『시·소아·벌목(詩·小雅·伐木)』: "변두유친, 형제무원(籩豆有踐, 兄弟無遠)." 『삼국지·촉지·제갈량전(三國志·蜀志·諸葛亮傳)』: "친현신, 원소인(親賢臣, 遠小人)."

외부 공간에서 내부 사유감정까지, 구체 감각은 그 중에서 중요한 연결 작용을 발휘했다.

인류의 추상 사유는 대부분 이런 은유성 추리를 이용했는데, 즉 익숙한 사물을 사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사물을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 근본을 궁구하면, 사람들이 최초로 익숙한 사물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체이다. 우리의 신체 및 신체와 세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최원시 개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하, 좌우, 전후, 고저, 원근은 모두 신체를 중심으로 하고, 냉, 열, 온, 량도 신체가 느끼는 것이다. 이런 신체 중심의 원형 개념을 기초로, 우리는 기타 일부 더 추상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예컨대 정감 상태를 형용할 때, 우리는 열정, 냉담, 흥高采열(興高采烈), 사기침침(死氣沉沉), 정신고양(精神高漲), 지고기양(趾高氣昂) 등등을 사용했다.

체화 인지 이론은 신체가 인지 과정에서의 기초성과 결정성 작용을 강조한다. "인지, 신체와 환경이 하나의 동적인 통일체를 구성한다."

외계의 인체에 대한 자극은 감수기에 의해 전기신호로 전환되고, 신경섬유를 거쳐 신경 중추에 전달되며, 대뇌피질에서 감각을 생산한다. 그 중 구체 감각이 포함되는데, 속성에 따라 또 촉각, 온도각, 통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정황 평가를 진행할 때, 진일보 지각과 상응하는 정서를 생산한다.

따라서, 상술한 "가까움——예민함——민첩/민감" 어의 인신 배후의 심리 메커니즘은 은유 외에도, 더 깊은 층의 인지 경로에 기초한 환유가 있다. 우리는 Goossens(1990)가 제출한 은환유(隱轉喻, metaphonymy) 이론을 빌려, 이런 메커니즘을 "환유에 기초한 은유(metaphor from metonymy)"로 귀속시킨다.

2. "(행동)유연함" 의미의 생산

감각 장애와 지체 경직, 운행 불수의 운동 장애는 모두 병인에게 주관 의지와 구체가 분리되고, 주체와 주위 환경이 단절되는 느낌을 생산하게 한다. 전기신호가 순조롭게 신경 중추로 전도될 수 없어, 대뇌피질에서 감각을 생산하지 못하고; 대뇌가 발출하는 지령도 순조롭게 상응하는 근육으로 전달될 수 없어, 구체의 행동을 지휘하지 못한다.

이런 주관 감수의 구상화는 바로 격합(隔閡)으로, "인신여지불상유(人身與志不相有)" (『소문·역조론』). 오직 "장애"를 소제하고, 관통 무애해야, 감각이 예민하고, 행동이 유연할 수 있다. "(감지)예민함" "(행동)유연함"은 모두 관건 의소 [+빠름]과 [+정확]을 포함한다. [+빠름]은 시간상의 "접근"이고, [+정확]은 외부 자극——주관 감지, 외부 동작 표현——주관 의원의 "접근"이다.

"불인"의 증상과 유사한 "목(木)"과 유비할 수 있다:

(15) 불인자, 부지통양, 기부완목지위(不仁者, 不知痛癢, 肌膚頑木之謂). (명·장개빈 『유경(類經)』권17 "질병류")

(16) 여목지후, 고명왈목. …… 목즉전무각야(如木之厚, 故名曰木. …… 木則全無覺也). (명·손문운 『단대옥안』권2 "마목문")

감각 장애를 가리킨다.

(17) 목자, 강이불유화야(木者, 強而不柔和也). (금·장종정 『유문사친(儒門事親)』권3 "후설완급침약부동해")

운동 장애를 가리킨다.

(18) 기혈응결, 기육경종, 강목부지통양(氣血凝結, 肌肉硬腫, 彊木不知痛癢). (청·오겸 『의종금감(醫宗金鑑)』권75 "외과심법요결")

감각 장애와 운동 장애를 겸하여 가리킨다.

또 "마비(麻痺)"를 유비할 수 있다. 『한어대사전·마부(漢語大詞典·麻部)』"마비": "유우 신경계통적병변, 혹은마취약물적자격등원인, 사기체적감각급운동기능완전혹부분상실 (由於神經系統的病變, 或麻醉藥物的刺激等原因, 使機體的感覺及運動功能完全或部分喪失)." 마찬가지로 감각과 운동 장애를 포괄한다.

진일보 확대하면, "지(遲)""둔(鈍)""우(迂)""눌(訥)""줄(拙)""영(靈)""민(敏)""교(巧)" 등의 어는, 감지 사유를 묘사하기도 하고, 행위 동작을 묘사하기도 하며, 한어 방언과 기타 언어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가시적으로, 감지역과 동작역 사이에는 사상 관계가 존재한다. "(감지)예민함"은 "(행동)유연함"을 은유할 수 있다.

감각과 운동 본신도 상관성이 존재한다.

첫째, 우리는 정확하고 적시의 감각, 정밀하고 제어 가능한 운동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며, 외계와의 연계를 확인한다. "고수준의 사유와 행위는 대뇌 감각 각 정보의 입력과 운동 능력의 정합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양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감각과 운동은 상호 영향한다. 감각 자극은 피동 접촉과 주동 탐촉에서 오는데, 주동 탐촉은 운동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감각은 반사의 성질을 갖는데, 감수기와 효응기의 활동이 긴밀히 연계되어, 효응기는 응답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 과정에도 참여하여, 정보 입력을 강화하고, 감각 과정을 더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한다. 그리고 운동도 정확하고 적시의 감각 신호의 지도가 필요하다. 감각 장애는 운동 반궤 정보를 문란하게 하여 운동 기능 실조를 초래한다.

따라서, "(감지)예민함——(행동)유연함"의 인지 메커니즘도 "환유에 기초한 은유"이다.

3. "인"의 어의 체계

우리는 "인"의 어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림2(중문 원본 참조)

발견할 수 있다:

일, "가까움"은 "인"의 어의 체계를 총괄하는 핵심 의미이고, 동시에 "인"의 어원 의미이자 본의이다.

이, "은유에 기초한 환유" 메커니즘은 "인"의 어의 변천 과정에서 많이 보인다. 이

현상의 원인은 "외계——감지——사유/정감/행동" 서로 다른 영역의 사상과 심리학의 감지 행위 경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감각운동 개념은 감각운동 경력에서 온다. "우리의 정감과 지각운동 경험은 계통성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방위 은유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체화 경험 및 이 기초 위에서 형성된 개념은 모두 원시적인데, 이것도 "인"의 이 일련의 어의 변천이 늦어도 춘추시기에 이미 완성된 원인이다.

삼. 결어

증상명 "불인"은 "감각 상실 또는 감각 둔화""지체 경직, 운동 불유연"을 가리킨다. 상응하게, "인"의 의미는 "(감지)예민함""(행동)유연함"이다.

"인"은 일반 문헌에서의 통행 의미는 윤리 교화 색채를 갖춘 "인덕"인데, 이것은 유가 사상이 고대에 장기간 정통 지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인류의 일체 문화는, 모두 언어를 재체로 하여, 언어 중에서 반영을 얻고, 문헌 중에서 기재된다."

어용 각도에서 볼 때, "예민함""유연함" 의미를 표시하는 "인"이 왜 독용례가 드문가는, 가능하게 두 방면의 원인이 있어, 언어의 명확성과 경제성 원칙을 체현한다: "인덕"이 "인"의 강세 의향이 되어, 이 의미를 표시하는 "인"의 사용 빈도가 극히 높고, 어역이 극히 넓다; 중의 문헌 "감지""운동" 맥락에서는 의미 표시와 이거가 더 명확한 "지(知)""각(覺)""수(遂)""운(運)""행(行)""통(通)" 및 구체적인 "한(寒)""랭(冷)""열(熱)""조(燥)""습(濕)""통(痛)" 등의 어를 많이 사용하고, 각항 기능이 정상, 신체 건강은 자주 포괄적인 "평(平)""화(和)""안(安)""조(調)" 등을 사용하고, "병유(病愈)" 맥락은 자주 "차(差, 差瘥)""유(愈)""이(已)""해(解)""료(瘳)""복(復)" 등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맥락의 어휘 분공이 명확하고, 따로 "인"을 단독 사용하여 감지 운동 능력 정상/회복 정상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불인"의 어원은 비교적 오래되었는데, 생산된 것은 가능하게 어휘의 쌍음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중의 문헌은 상대적 폐쇄성을 갖추어, 종종 초기 경전의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장기 고빈 사용은 부정식 "불인"의 숙어화를 촉진하여, 점차 고정 형식으로 응고되었다.

어의 원류에 대한 고찰은, 훈고학이 수문작석(隨文作釋)의 국한을 초월하여, 의미에 대해 더욱 정확한 밝힘을 하게 하고, "언어 속 어와 어 사이의 어의 연계와 언어 어휘의 계통성을 인식하고, 어의 변천과 어휘 발전의 규율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전의 자사 의향 귀납은 정확하고 전면적이어야 하며, "불인""인"의 의향은 모두

감지, 운동 두 차원을 포괄해야 한다. 본문의 연구는, 혹시 사전 수정에 약간의 참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